A large group of people, likely a theater troupe, posing on the steps of a building with green doors. The group is arranged in several rows, with some people standing on the upper steps and others sitting or kneeling on the lower steps. The overall atmosphere is celebratory and professional.

인하극회 50주년

연극 <민중의 적>

공연 계획서

1. 개요

- 주최 : 인하극회
- 주관 : 인하대학교 극예술연구회 총동문회
- 후원 : 인하대학교, 인하대 총문동문
- 공연시간 : 총 110분
- 입장권 예상가격 : 20,000원
- 관람연령 : 7세이상 관람가

2. 단체소개

인하극회(인하대학교 극예술연구회)는 1973년 창립한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단체로서 초기에는 탤런트겸 연극 배우 '정 진' 선생님께서 연출 지도를 해 주심으로써 탄탄한 기반 하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인천 문화예술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끊임없이 공연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85년 '세일즈맨의 죽음' 이란 작품으로 [제 10회 대학 연극제] 에서 우수상을, 1997년 가을에는 '낙선재의 꿈' 이라는 작품으로 [전국대학 연극제] 에서 금상과 희곡상을 수상하면서 인천 연극의 위상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인하극회는 1년 동안 정기공연 2회(봄, 가을 정기공연), 워크숍 2~ 3회(여름, 겨울 워크숍, 신입생 환영 공연)를 꾸준히 공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동문들이 모여 동문연극 또한 활성화되어 있으며, 기념되는 공연의 경우 정 진 선생님을 비롯한 인하대학교 총동문 및 재학생들이 함께하여 역사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3. 공연취지

1973년, 연극 및 예술의 불모지였던 인천에서
인하극회는 꿈과 열정으로 인천관객들을 만났고,
어느덧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조금 더 큰 무대에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50년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는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재앙이 연극예술의 위축을 불러오지만,
다시금 연극의 열정으로 관객들과 만나는 자리를 만든다.
인천에서 인하대가 차지하는 위상에 걸맞게 좋은 무대를 통해 시민들과
더불어 즐기는 잔치 한마당을 펼친다.

4. 공연 개요

- 공연작품 : 민중의 적
- 작 가 : 헨릭 입센
- 공연장소 :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 공연날짜 : 2023년 6월 8일(목)~10일(토)
- 공연시간 : 목-금 19시30분/ 토 14시 (총3회 공연)

- 셋업 및 리허설, 철수일정 : 6월1일 - 6월11일
 - ※ 6월1일,2일,3일,4일 (셋업) / 6일,7일 (리허설) / 11일 (철수) 예정
 - ※셋업,리허설,철수 시간은 주52시간 범위 내에서 진행예정

5. 작품소개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한 민주주의의 허점. 민중의적 - 노르웨이의 한 작은 마을의 의사 토마스 스토크만은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려고 온천 개발의 아이디어를 낸다. 그러나 온천수가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자 개발 계획을 수정하도록 만들려 한다. 한편 온천 개발에 이미 막대한 투자를 한 지역주민들은 박사의 발견이 미칠 경제적 파장을 고려하여 박사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한다. 특히 개발의 수정계획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시장이 박사의 친형이어서 두 주장의 대립은 극대화된다. 온천 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이자 시장인 피터 스토크만은 권력을 앞세워 올바른 시민이자 과학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토마스 스토크만 박사를 설득하여 오염의 실상을 번복하라고 다그친다. 오염의 실상을 알리려는 스토크만 박사의 주장은 급진적 사회주의 성향으로 간주되는 언론사 간부들의 지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온천 개발과 관련된 인물들의 이기심이 표출되고 이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스토크만 박사의 양심적 주장은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마적 요소로 비쳐진다. 투자 이득과 개발 이익을 얻으려는 유지들과 이를 담보로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치인들은 대중을 동원하여 스토크만 박사를 ‘민중의 적’으로 낙인 찍는다.

6. 무대배치도

무대 배치 및 조명, 음향에 관한 사항은
대관심사 통과 후
세부플랜을 제출해 드릴 예정입니다.

7. 출연진 및 스태프

기획 - 박상연(現 인하극회 회장)

 문효원(現 국립정동극장 홍보마케팅팀장)

연출 - 임진철

조연출 - 전승훈, 강인성

무대감독 - 강봉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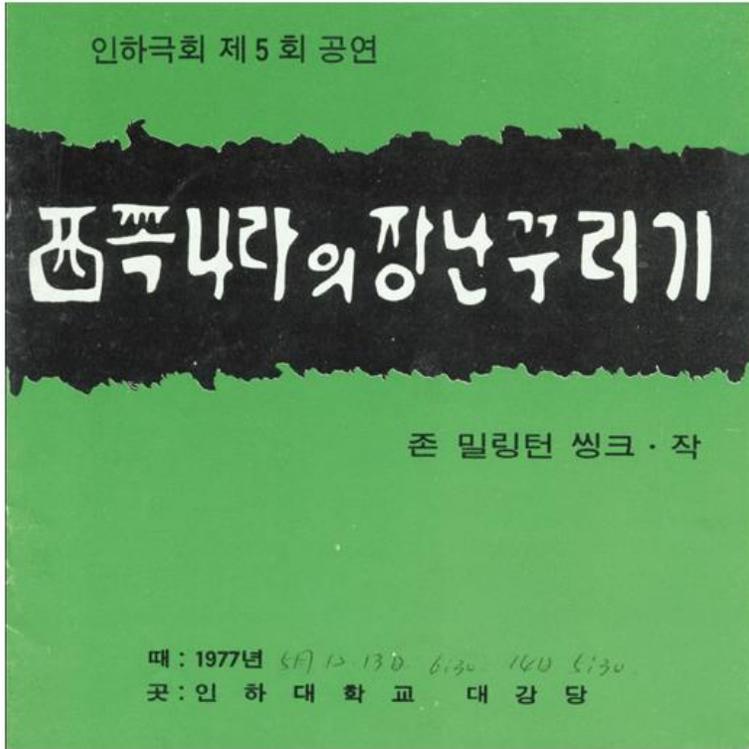
드라마트루기 - 최광석

배우 - 25명~30명

스텝 - 장치, 조명, 음향, 의상, 분장, 소품 등 10여명

8. 주요공연 경력

창립 후 50년동안 정기공연 81회, 워크숍 82회, 동문연극 14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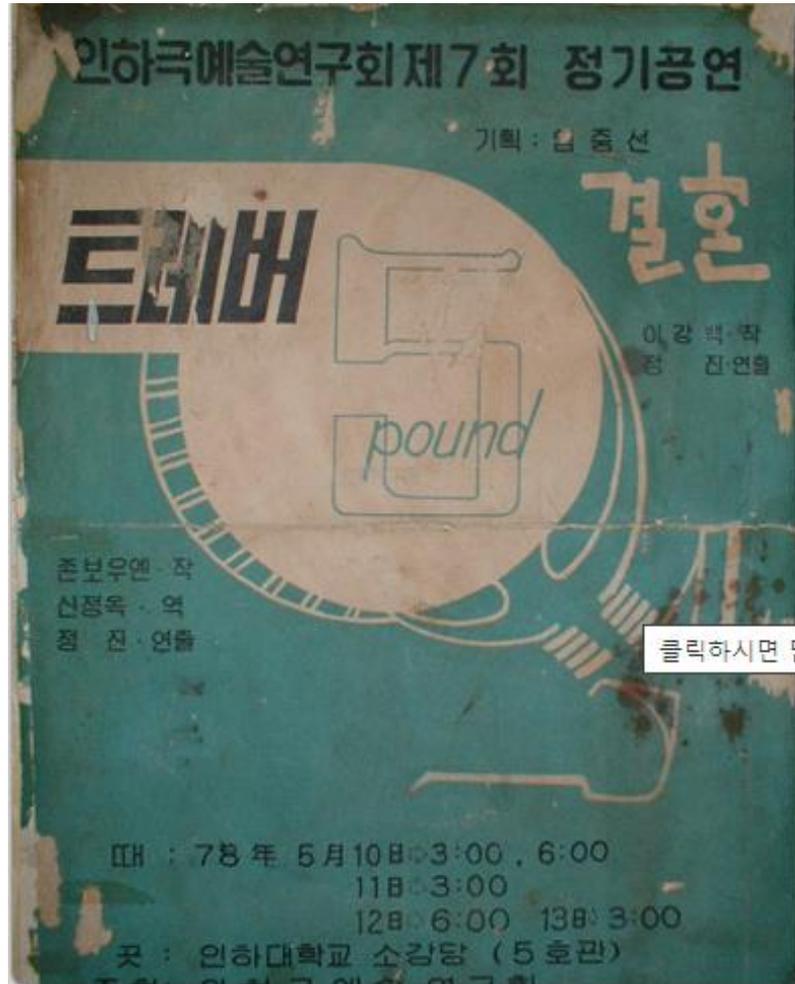


공연제목 : 서쪽나라의 장난꾸러기

공연일시 : 1977. 5. 12 ~ 14

작 가 : 존 밀링턴싱크

연 출 : 정진



클릭하시면 듣



인하극예술연구회 창립 20주년 기념 공연

갈매기

Chayka

- 제작: 인본 채홍
- 기획: 신용철
- 연출: 임진철



- 일시: 1992년 5월 20일~5월 23일
평일: P.M.5시 30분, 토요일: P.M.3시
- 장소: 인하대학교 대강당
- 후원: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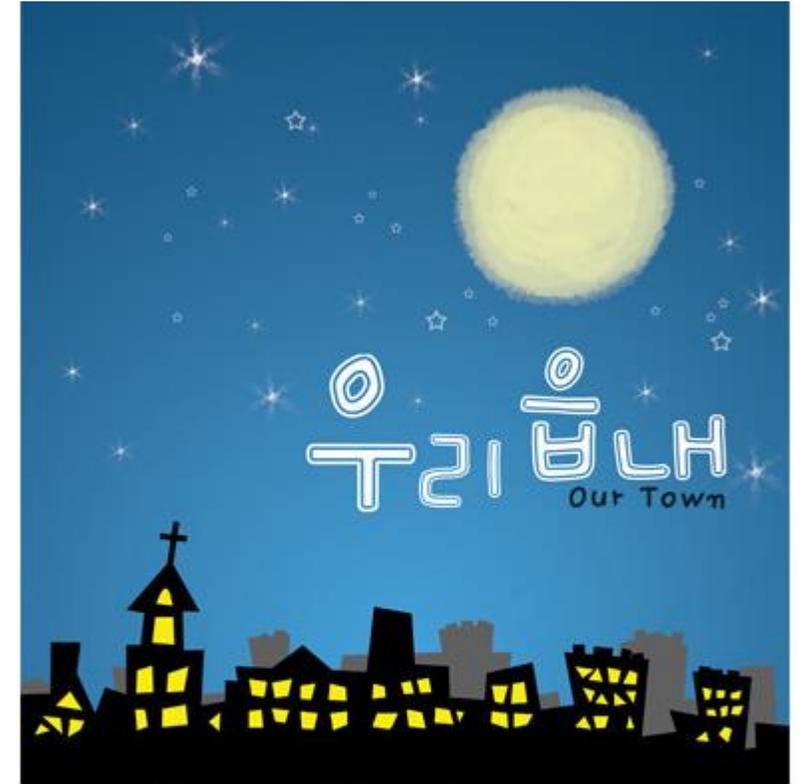
제20회 전국대학 연극제 출품작 및 인하극회 창립 25주년 기념 제44회 가을장기공연

낙성재의 꿈

丁未生 施子

기획: 오주현
작, 연출: 임진철

일시: 9월 30일 ~ 10월 1일
장소: 본교 대강당
협찬: 한일은행



인하극예술연구회 창립 30주년 기념 동문재학 합동공연

손튼와일더 작 | 강봉근 제작 | 김우상, 김종만 기획 | 임진철, 최준범 연출
2003.10. 1~10. 4_수,목 7시_금,토 3시 6시_인하대학교 본관대강당
<http://www.inhadrama.com>

인하극예술연구회 제 40주년 동문 재학 합동공연

40

uncle VANYA

바냐 아저씨

2013.10.10~12
인하대학교 5남소강당
평일 7시, 토요일 2시, 5시

작가 · 안톤 체홉 기획 · 박병철 제작 · 이현주 연출 · 장명수 무대감독 · 임성준

출연 · 최병규, 최준범, 오현경, 공우형, 김동우, 박민서, 이우희, 이원기, 박종현, 이문주, 김정민, 이종환, 강진영
무대 · 심세원, 황인희, 김승현, 박은석 조연 · 백기호, 김윤찬, 이상, 김지혜 분장 · 현승광, 박유진, 이현미 음악 · 홍준철, 박소연, 소중 · 박혜진, 김유리 편집 · 최영철 홍보 · 심의 · 김희정, 진수훈, 신지현, 유나희

032-860-8948



인하극예술연구회
since 1973

어느 계단의 이야기

Historia de una escalera

인하극예술연구회 창립 45주년 기념 동문 재학 합동공연

현태경, 이형숙, 이은주,
서장매, 최복희, 윤영만,
박문경, 원문연, 김효준,
김형준, 김형택, 박서영,
이다미, 김은주, 이 은.

2018년 3월 30일, 오후 7시
2018년 3월 31일, 오후 2시, 6시

극단 '비전' 창단 50주년 기념공연



H 레어나드 작

DA

인신근연출, 오병선제작, 김홍태기획

인하극회,인하대학교 및 총동문교 극예술연구회에서는
가장 무대환경이 좋은 부평아트센터에
이상과 같이 공연 계획서를 신청 하오니
부디 심의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